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④ 안락행품 제14

안락행

앞의 제13장 권지품에서 바이사자(波逸沙) 보살과 마하푸리타파나(摩訶菩提) 보살을 우두머리로 하는 2만의 보살들에서부터 80만 억 나유타의 보살에 이르기까지,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법화경>을 간직하고 넓힐 것을 맹세했다. 이 제 14장 안락행품에서는 그 맹세를 받고, 다음의 험악한 세상이 된 이 사바세계에서 어떻게 <법화경>을 설해 넓힐 것인가, 즉 경전을 넓힘에 있어 가져야 할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밝히고 있다. 그 몸과 마음가짐에 대해 설한 것이 '안락행'이다.

천태대사(天台大師)의 해석에 따르면 이것을 몸(身)·입(口)·뜻(心)·서원(誓願)의 네 가지로 분류한다.

먼저 몸(身)의 안락행은 보살의 행위 즉 행동(行處)과 교제법위(親近處)가 설해져 있다. 행처(行處)란 인육의 경지에 머물러 제법실상(諸法實相)의 모습을 관(觀)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 친근(親近)에 대해서는 우선 최초에 보살이 가까이해서는 안 될 사람들을 열거하고 다음에 친근

할 것을 부처님 앞에서 맹세했다. 그것을 이어 받아서 이 '안락행품'에서는 구도자 만주슈리가 대표가 되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다음의 악한 세상에서 이 <법화경>을 어떤 방법으로 설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부처님께 묻는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 "만일 보살마하살이 미래의 악한 세상에서 <법화경>을 설하려면 마땅히 다음의 네 가지 행법(行法)에 관한 머물러야 한다"고 하시며 다음의 네 가지의 행법에 대해 차례 차례로 설하신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네 가지의 가르침을 '안락행'이라 이름한다. 그러므로 '안락행'이란,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의 악한 세상에서 <법화경>을 넓히는 사람이 지나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앞의 '법사품'에서의 '홍경(弘經)의 삼계(三軌)' 즉 <법화경>을 넓히는 세 가지의 바른 길과 비록 그 길은 하나이지만, 그 내용은 '법사품'의 웃(笑)·자리(坐)·방울(雨)의 세 가지의 길보다도 훨씬 구체적이며 현실에 입각

법화경 설할때 몸·마음가짐 밝혀 천태대사, 몸·입·뜻·서원 4분류

해야 할 것으로 ①조용한 곳에서 좌선을 하여 마음을 닦아 다스릴 것 ②인체의 현상(一切法이 공성(空性)을 관할 것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 14장의 이름의 유래가 된 '안락행'이란, 원어 수카-비하라(Sukha-vihara)의 중국어 번역으로 원래 의미는 '낙원에 머무는 것, 즉 심신이 안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안락행이란, 안락한 수행이라는 뜻이 아니라 안락한 상태에 몸과 마음을 두기 위한 실천행(實踐行)을 말한다. 그래서 법본 즉 산스크리트 본에서는 이 14장을 '안락한 생활'이라 부르고 있다.

이 '안락행품'의 첫머리에서 만주슈리(文殊) 보살은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여쭙는다.

"세존이시여, 이 여러 구도자들(諸佛)은 함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부처님을 존경하고 따르기 때문에 큰 서원(誓願)을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의 험악한 세상에서 이 <법화경>을 수호하며 읽고, 외워, 배우고, 남에게 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큰 뜻을 세운 초심의 구도자들이 다음의 험악한 세상에서 <법화경>을 설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 장(前章)의 '권지품'에서 다섯 종류의 사람들이 <법화경>을 마음 속에 간직(受持)하고 넓

혀 설해져 있다.

첫번째의 안락행은 앞서 말했듯이 천태대사에 의하면 이를 '신인락행(身安樂行)'이라 하는데 이를 톨로 나누어서 해석한다. 즉 보살의 행처와 친근처가 그것이다. 행처(行處)란, 아차라(acara)의 번역으로 행동(行動) 또는 거동(舉動) 등의 뜻이다. <법화경>에서는 '인육(人肉)의 경지에 머물러 어떤 것에도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고 제법(諸法)의 상을 관(觀)하고 설하고 있다. 즉 항상 모든 것에 대해 참고 견디며 어떠한 것에도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고 사물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관(觀)하는 것이다. 사람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 마음에 집착이 있으면 사물의 진실한 모습을 보는 눈이 흐려진다. 그러므로 이 집착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법사품'에서 설한 "유화인육(柔和人肉)의 웃을 입고, 일체법(一切法)이 공성(空性)이라는 여래의 자리에 앉아서"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말법시대에 <법화경>을 넓히려는 사람은 이러한 마음가짐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

이것이 초심의 보살이 <법화경>을 넓히려 할 때 지나야 할 마음가짐이다.

■무성정사 조식

아이가 꿈을 꾸었다.

아름다운 언덕을 넘어 가니 커다란 호수도 있고 호수 한 쪽에는 짙검과 쪽포도 있었다. 호수를 구경하면서 길을 가는데 호수 가운데에서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니 물결 속에서 용 한 마리가 꿈틀대며 몸을 드러내는데 물이 하도 많아서 물속의 몸도 잘 보였다. 용은 호수를 휘휘 세 바퀴 돌더니 아름다 버드나무에 난 큰 구멍을 빠져 나가 하늘로 오르기 시작했다. 용이 꿈틀거리며 마다 구름이 봉개공개 들어 들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며 '저것이 용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뒤에서 한 노인이 깔깔 웃으며 말했다. "용이 바로 저런 것이다. 구름을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용이 움직이면 구름이 따라 모이는 것도 운천(圓轉乘天)이다. 용이 없는 구름을 만들어 승천을 하듯이 성인과 영웅도 스스로 자기의 시대를 만드는 것이다." 노인은 웃음소리만 남기고 사라졌다. 아이는 계속 용을 바라보았다. 푸른 허공에서 꿈틀거리며 구름을 모아 하늘로 오르는 용. 한참을 바라보니 마침내 용은 한 점으로 보이고 그 한 점마저 사라졌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다. 아이는 그 꿈을 잊을 수가 없었다. 누구에게 말도 하지 않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꿈 생각을 했다. 그러다가 '꿈이 되라는 꿈이다'라는 생각이 이리저리 가슴이 시원해지고 머리가 맑아졌다. 집을 떠났다. 절 이름에 응(應) 자가 들어 있는 수원의 용주사를 향해 안성 땅을 떠나 무작정 걸었다. 그리고 입산. 아이의 나이는 여섯 살이었다.

의룡(義龍) 직지사 강주 스님의 출가 인연이다. 스님은 워낙 어린 나이에 스스로 걸어서 입산을 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도 여러 어른 스님들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했다. 거기에 절 생활의 예법과 경전 공부까지 남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익어 더욱 사랑을 받았다. 12세에 만해 스님(한운은 스님이 아님)으로부터 사미계를 받고 2년 뒤에 일해 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받았는데 그때까지 스님은 한학도 배우고 경전도 열심히 배웠다.

직지사 응진전과 관음전의 뒤쪽에 자리한 벽안당(佛眼堂)에 주석하며 직지사 강원 화엄반 학인들을 지도하는 의룡 스님의 법호는 능허(陵虛) 법랍은 용자가 들어간 것이나 법호가 그공을 업신여긴다는 의미이고 보면 스님의 출가 담에 등장하는 용공에 대해 수긍이 간다.

의룡 스님은 명봉스님으로부터 진강을 받았다. 명봉스님은 우리나라 근대 강맥의 두 산맥인 진공 스님과 한영 스님 중 한영스님으로부터 강맥을 전수 받은 대강백이었다. 창당 스님이 해인사 주지로 부임하면서 명봉스님을 해인사 강주로 모시기 위해 3번이나 찾아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화다.



◇있는 듯 없는 듯 직지사 벽안당에 머물며 학인들을 가르치고 홀로 선 수행에 힘쓰는 의룡스님의 가풍이다.

강주 스님이기에 경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게 될 것으로 생각 했는데 스님은 의외로 선 수행에 대한 말씀에 힘을 주었다.

"사교입선(捨教入禪)에 대한 오해가 요즘 불교를 이상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교학을 무시하고 선만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를 배워 바탕을 삼고 선을

경전공부 소홀하면 교학도·선수행도 모두 성취할 수 없어

실천하여 깨달음을 얻는다는 이치인데, 그러기 위해 선을 할 때는 이미 배운 교학에 대한 집착을 떠나야 한다는 것인데 사람들이 책을 멀리하고 선만 하면 성불을 한다고 생각하니 거기서 잘못이 시작되는 겁니다. 선 수행을 하는 방법이다 교학에 있는데 그걸 무시한 채 뒤

어 넘어면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스님은 부처님도 늘 선정에 들어 설

법을 했다는 점과 법회 때 법문을 듣기 전에 입정을 하는 것이 다 같은 이치임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은 직후 석 달 동안 그 깨달음의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 중생들을 위해 무상(無上)의 진리를 설해 달라는 제석천의 간청을 받고서야 설법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깊은 선정에서 얻어진 진리를 말로 표현하는 데는 역시 선정의 자리에서 가능하므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설법을 하기 전에 항상 선정에 들었다. 모든 경전의 시작이 그렇다. <금강경>을 보면 부처님이 결식을 마치고 수행처로 돌아와 발을 씻고 정좌하여 입정에 든 후 설법을 시작하는 대목이 먼저 나오지 않나. 의룡 스님은 경전공부를 소홀히 하면 선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다면 교학도 성취할 수 없고 선수행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부처님이 설산으로 출가하여 6년을 뒤야 성불했다는 것은 현생에서의 수행을 말하는 것이지만

가까이서 의룡스

출연 중도상에 앉으 그곳이 열반이고 여기가 화장세계라 달이 천장에 도장찍어 강마다 달이요 부처가 만가지로 나투 모양마다 부처로다

호흡조절·법륜 굴러

사실 부처님은 무량겁을 두고 공덕을 쌓았습니다. 그 무량겁의 공덕이 원만하여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공덕을 쌓는다는 것은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6바 밀, 10바 밀을 실천하는 등 선을 무수히 쌓아 그 공덕이 원만할 때 성불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의 제자들이 모두 성불 못하고 아리한과를 증득하는데 그친 것도 아직 공덕이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만큼 성불이 어려운 일입니다. 공덕을 닦기 위해서는 선행 실천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전 공부하고 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의룡 스님은 여래선을 닦을 것을 한다. '이 뭐?' 하기도 자칫 망상일 있다는 것이다. 성급하게 부처가 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그 욕심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바르게 공부하지 않고 선사를 어둠 몇 줄이 선의 경지를 다 드러내

특히 BBS 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연 특혜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 최초로 특허청에 의장등록 (제 0246178호)

승복·법복·잠옷·바람 판매 안내

불교계와 저희 기원섬유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고급모직 (특징 - 통통 잘림, 가볍고 구김없음,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조끼: ₩170,000) (동방바지: ₩160,000) (두루막: ₩140,000)
- 쿨맥스 (특징 - 품질 가장 우수함, 수분 발산율이 빠름, 구김없고 아주 가벼움,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조끼: ₩180,000) (동방바지: ₩170,000) (두루막: ₩150,000)
- 특수직 (특징 - 제일 가볍고 시원함,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조끼: ₩140,000) (동방바지: ₩130,000) (두루막: ₩110,000)
- 아토타크스 (특징 - 몸에 붙지 않으며 까칠함,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조끼: ₩160,000) (동방바지: ₩150,000) (두루막: ₩130,000)
- 광목 (특징 - 순수한국산, 손염색, 맛을 가진 승복) (적삼, 바지, 조끼: ₩170,000) (동방바지: ₩160,000) (두루막: ₩130,000)
- 장삼 (조계종, 태고종) - 춘추, 하절기(가사도 주문 받습니다.) (고급모직: ₩220,000) (특수직: ₩200,000)
- 셔츠 (차이나, 라운드) : 가볍고 시원하며 물세탁 가능: ₩30,000
- 결망, 바람, 나들이가방, 손가방, 보조가방
- 가볍고 예쁜 법복 (회색, 밤색) : 조끼 바지: ₩65,000

하절기 시원하게 보내실수 있게 저희 기원섬유가 책임지겠습니다.

스님께 가시불사 보시하면 십선(十善)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재갈란을 소멸합니다.

● 잠옷(항균처리) - 남, 여(상, 하) : ₩65,000
특징: 1. 특허청에 의장 등록된 옷자, 연꽃무늬가 은은하게 들어있음 (제0246178호)
2. 항균처리된 제품
항균처리란? 각종 박테리아와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시켜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청결한 몸상태를 유지시켜주는 특수제품 임

3. 고급순면으로 촉감이 아주 뛰어나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려비취' 본사 : 대구 동구 신천 3동 139-1 동영 B/D 302호
기원섬유 TEL : (053)764-4114 H·P : 011-9850-4400 지역 판매점 모집

"오가피를 아신다면 이글을 꼭 읽어보십시오" 라는 거짓 광고를 고발합니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제4민사부 결정을 조종하는 당사!
수신오가피 성공수씨에게 묻습니다. 저는 사법부의 결정이면 끝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법의 존엄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리한 당신의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거금 5억원이라는 공탁금을 내고 가처분신청을 했습니. 그리고 결정을 받았습니. 그러나, 그 결정문도 휴지가 되었습니. 여전히 오늘 현재까지 편편광고로 사법부의 관권을 비웃고 있습니다. 법의 존엄과 법의 결정은 휴지입니까?

지난 몇 년간 가시오가피 내용으로 오가피 제품을 판매 승송수구하던 수신오가피가 최근 조작자를 서슴치 않는 것은 가시오가피의 진실이 하나, 품격 밝혀지면서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어서 인니까? 특히, 막대한 광고비를 쏟아부으면서도 영입에 압박을 받게 되자 본인 의도하에 조작된 샘플을 이용하여 실험해 놓고 마치 본인의 제품이 가장 우수할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은 위기의감의 발로 인니까? 합박재가시오가피 농장에서 재배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보호식물로 지정된 가시오가피입니다. 당신은 오가피 나는 가시오가피로드는 가는 길이 다릅니다. 당신이 무엇이라 하던 오가피가 가시오가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수신오가피 성공수씨의 물음에 답하고 묻습니다!

- 당신은 자기 제품(수신 오가피)의 시료는 농축하고 합박재가시오가피 제품에는 물을 먹어 시료를 조작하였습니. '농촌진흥청 호남작물시험장 연구 보고(도표참조) 그런데, 당신의 손을 거치면 없는 것이 나타나고 타사의 것은 작아집니까? 당신은 분명 도깨비 방망이를 저녘습니까?
- 당신이 말하는 가시오가피의 지표는 아칸토사이드가 아니라 이소프락시딘입니다. "이소프락시딘이 없으면 가시오가피가 아님니다." 국제적으로 진짜 가짜를 식별하는 지표로 삼는 것은 가시오가피에 안 있는 성분으로 다른 식물에는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미량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 각국이 이소프락시딘을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는 있었습니까? (수신오가피 성공수씨는 오가피를 가시오가피 내용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
 - ▶ 당신이 편지라고 수백만부 이상을 뿌린 (오가피)의 효능"이라는 책자 40쪽부터 47쪽까지 복용사례, 기타 인용문 중 오가피는 가시오가피입니다.
 - ▶ 일본의 예조우르기는 오가피가 아니라 우리말로 가시오가피입니다.
 - ▶ 구 소련의 브레즈네프는 인삼 대가로 연구하여 세계에 그 이익자금을 알린 것은 오가피가 아니라 엘루테로쿠스 즉, 우리말로 가시오가피입니다.
 - ▶ 독일의 석학 비그너 박사가 한국산이 소련산의 4배, 중국산의 6배의 엘루테로사이드가 많다는 것은 오가피가 아니라 가시오가피입니다.
 - ▶ 구 소련의 우주비행사나 올림픽 출전선수들이 이용한 것은 오가피가 아니라 가시오가피입니다.
- 국내 최대 오가피 재배지라고 주장하는 수신오가피의 성공수씨 전한 수신면에 위 치한 농장이 당신이 주장하는 최대의 농장입니까? 그 농장의 생산량은 당신이 현 재에 판매하고 있는 원재료의 1개월분도 채 안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농장은 러시아에 있습니까? 중국에 있습니까?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 머피의 말

문의전화 (02) 2272-4900